

# 드라이아이스·용접 수요 급증에 정부 '탄산' 공급망 안정화 집중

산업부, 업체들과 정비일정 조정  
내년 상반기 '수입보험' 품목추가  
생산·제조 관련 규제개선 등 나서

정부가 음료 첨가물에서부터 반도체 세정용 특수가스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는 탄산(CO<sub>2</sub>) 수요가 증가하자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탄산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석유화학·정유사드아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원료다. 조선업에서는 용접, 반도체업계에서는 세정용 특수가스로 사용되며 음료 첨가물이나 의료용 냉각 치료 등 폭넓게 쓰인다.

그간 국내 원료탄산 공급처와 공급량의 한계로 석유화학·정유업계의 정비일정, 업황 등에 따라 탄산 공급량의 변동성이 심화돼 탄산 수요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최근 신선식품 택배사업 확대로 인한 드라이아이스 수요 증가와 함께,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용접용 탄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탄산을 수입하고 있으나, 높은 물류비용으로 수입 확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원료탄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의 다음 연도 정기 보수일정을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필요시 업체들과 협의해 정비일정을 분산·조정한다.

또 국내 원료탄산과 탄산 생산·제조 관련 설비 신·증설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관리하며, 업체의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탄산 생산량 부족시 수입 확대와 비용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대상품목에 탄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중기중앙회) 등을 활용해 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 민간 주도의 탄산 구매·수요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 한국석유화학협회를 탄산수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큰 하절기 등 대체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원·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탄산 공급·수요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 등 4개 협단체가 탄산 수급 안정화를 위해 탄산 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탄산 일라이언스는 탄산 수급 관련 동향 정보 공유, 업계 애로사항 상시 파악, 정책 발굴 및 대정부 제언 등에 합의했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탄산 수급 안정화와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같은 공급망 내에 있는 협단체가 일라이언스로 뭉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0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한·중 지방 미래산업 협력 세미나'에서 전춘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TRA

## 韓中 지방기업 비즈니스 교류확대 추진

코트라 '지방 미래산업 협력 플라자'  
수교 30주년 기념 특화산업 교류 확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10일 수출 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지방 미래산업 협력 플라자'를 이날부터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지방 기업 간 비즈니스 수요를 발굴하고, 양국 특화산업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10일에는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한·중 지방 미래산업 협력 세미나가 열린다. 중국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참가해 중국 지역별 신산업 현황과 진출 기회를 청취한다.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지방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방영된다.

세미나는 3가지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중국 신지도부 출범에 따른 중국 경제를 조망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미래산업 분야의 진출 기회를 발굴하며, 나아가 한·중 지역 간 비즈니스 전략 및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11일부터 16일까지는 양국 지방 기업 간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국내기업 51개사와 중국 바이어 99개사가 모여 약 200건의 온라인 상담이 개최된다. 바이오메디컬, 조선기자재, 미래차부품 등 지역별 특화·육성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내 진출 유망지역 소재 바이어와 상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양효균 주한중국상의 집행회장은 "양국 무역·투자기관의 협력하에 지방기업들의 파트너쉽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양국이 그간 쌓아온 자매우호 결연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교류가 앞으로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춘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기업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국 지역경제가 더 발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상호가 원활하도록 KOTRA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 가스공사·난방공사 사장에 최연혜·정용기

에너지분야 경험 없는 尹 캠프 출신  
'보은인사' 논란 피하지 못할 듯



최연혜 정용기  
가스공사 사장 내정자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

에너지 관련 공사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장이 바뀐다. 한국가스공사는 최연혜 전 의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정용기 전 의원을 내정했다. 하지만 모두 에너지 분야 경험이 없는 윤석열 캠프 출신이 내정되면서 보은인사 논란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와 정치권 인사를 주요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출범 반년 만에 깨뜨린 셈이다.

1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결과를 가스공사에 통보했다. 가스공사는 오는 18일 이사회, 다음달 7일

정되면 공사 출범 아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한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의원과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원내에서는 가스공사 소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등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도 지내며 공사에 몸을 담았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사실상 '비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앞선 1차 공모에서도 에너지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9월 진행된 재공모를 통해 결국 가스공사 사장으로 최종 내정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섰으나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9월 진행된 재공모를 통해 결국 가스공사 사장으로 최종 내정됐다. 최 전 의원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확

히정윤 기자 zelkova@

## 식약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문열어

전남 화순에 면적 1300평 규모  
임상시험 검체분석 등 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제품화 기술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백신 임상시험 검체 분석 ▲백신 품질검사 ▲백신 생산용 세포주 분양·관리 ▲1:1 맞춤형 제품화 컨설팅 ▲국내외 백신 개발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실습이 가능한 전문교육 시설을 구축해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산 백신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신센터의 제품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화 지원이 국산 백신 개발을 촉진하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핀란드 등과 방사성폐기물 정책 논의

산업부, 선도국과 국제심포지엄  
주요국 전문가 모여 정책 등 공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핀란드와 스웨덴 등 선도국들과의 기술협력 논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1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실행을 위해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진 주요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의 정책과 기술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기술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11일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관리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주제세션 및 특별세션이 열린다.

두 세션에서는 세계 최초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는 핀란드와 올해 초 고준위 방폐장 건설허가가 승인된 스웨덴, 오는 12월 건설허가신청을 앞둔 프랑스 등 방폐물 관리 선도국들이 참여해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을 위한 제언



에 나선다.

특히, 연내 확정을 목표로 수립 중인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 로드맵과 함께 이를 선도국의 기술 로드맵이 한 자리에서 공개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선도국의 구체적인 기술이 전망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원전의 적극 활용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R&D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안전관리 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